

광주 소년범 재범률 40% 육박...교정·교화 절실

[극으로 치달는 소년범죄]

〈상〉높은 재범률과 폭력행위 인식 부재

폭행영상 공유 등 범죄 인식 낮아...“미디어 영향” 광주 전체 보호관찰담당관 1인당 60-65명 관리

최근 광주에서 일어난 여중생들의 집단폭행 사건이 논란이다. 동종 범죄로 처분 전력이 있는 가해학생이 직접 폭행영상을 촬영하고 게시해 소년범죄의 높은 재범률과 폭력에 대한 가벼운 인식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는 교육과 교정 제도 아래 관리돼야 하지만 중학교는 의무교육으로 학생신분임에도 가정밖 청소년인 경우가 많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것도 문제다. 이에 본보는 소년범죄 실태와 SPO(학교전담경찰) 현장 동행, 전문가 제언 등을 통해 소년범죄의 해법을 모색한다. /편집자 주

광주 여중생 집단 폭행 가해 학생이 소년원 이력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최근 3년간 광주지역 소년범죄 재범률이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단폭행 영상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소년범죄의 잔혹한 폭행이 늘어거리로 치부되는 실상이 드러나 실효성 있는 소년범죄 교정·교화시스템 마련이 요구된다. 7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 광주지역 소년범죄 재범자는 2019년 2천528명 중 1천13명(40.1%), 2020년 2천636명 중 1천43명(39.6%), 2021년 1천904명 중 688명(35.1%) 등 평균 재범률이 38.3%로 집계됐다. 이는 범죄 혐의로 처분을 받은 후 다시 범행을 이어가는 청소년이 많다는 의미로 교정·교화 시스템과 인성교육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소년범죄자를 관리하는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 담당관은 절도·폭행·성범죄

등에 따라 재범 위험성을 평가한 후 3개 등급으로 나눠 출석·면담 등 횟수를 나눠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보호관찰소에서 소년범죄를 담당하는 담당관은 총 9명으로, 이들은 1인당 60명에서 65명의 보호관찰사범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면담과 출장 등을 고려하면 실제 보호관찰은 형식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재범률을 줄이기 위한 소년원 내 교화 프로그램 조정도 요구된다. 광주소년원의 교화 프로그램은 자격증, 기술교육 등 직업훈련교육이 전체 프로그램의 60%를 차지하고 심층 상담 등 인성교육은 40%에 머무는 수준이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히 재범에 따른 소년범을 강하게 처벌하는 것보다 소년원 등에서 교정·교화를 강화하는 게 이들의 원활한 사회적 정착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며 “최근 소년범죄의 형태 등을 반영한 교화 시스템이 갖춰져야 소년범죄 재범률을 낮추는 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불거진 소년범죄는 ‘집단·공유 문화’라는 특이성을 갖는다. 성인범죄는 CCTV 등 범죄 행위 노출 행위를 두려워하지만, 소년범죄는 가해자가 직접 범행을 촬영 후 게시해 집단과 공유·과시하려는 성향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달 27일 광주 서구에서 여중생 4명이 가출범 등으로 인연을 맺은 학생을 집단폭행하고 영상을 찍어 SNS에 유포한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 학생은 SNS를 통해 폭행 전 예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구경꾼을 모집했고 폭행 영상 촬영분을 직접 본인의 SNS에 게시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광주 남구에서 일어난

중학생 동급생 폭행 사건과 지난해 10월 경남 양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모두 폭행영상이 학생들에 의해 촬영·유포됐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범죄형태가 부분 별하게 노출되는 미디어의 영향으로 폭력행위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소년범죄의 특징’으로 분석했다. 디지털네이티브세대인 청소년은 어렵지 않게 영화, 유튜브, SNS를 통한 폭력 행위를 가시적으로 접근한다. 자극적인 미디어를 재미로 접한 학생들이 공유 행위를 통해 다시금 재미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경찰인재개발원 학교폭력·청소년범죄를 담당하는 서민수 교수는 “해당 사건은 디지털세대의 폭력적 콘텐츠 노출에 따른 학습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청소년들이 폭행을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놀이문화라고 인식하는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복기자



“미안마 민주항쟁을 지지한다” 8일 오후 광주 서구 광천동 유스퀘어 앞에서 미안마 8888항쟁 34주년을 맞아 미안마광주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미안마인들의 민주화투쟁을 응원하며 미안마군부의 사형집행을 규탄하고 있다. /연함뉴스

‘싸이 흠뻑쇼’ 여수 시내버스 관계자 성희롱 문자 논란 ‘늘씬 뺑뺑 아가씨 눈요기하라’...시민들 격분

지난 6일 여수에서 진행된 ‘싸이 흠뻑쇼’와 관련해 여수 시내버스 관계자가 직원들에게 전송한 문자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문자엔 콘서트로 인해 터미널 일대가 혼잡하니 민원 발생에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전국에서 늘씬뺑뺑한 아가씨들이 전부 집결하오니 눈요기한다고 생각하고 수고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문자를 접한 시민들은 격분하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흠뻑쇼에 다녀온 한 시민은 “눈요기 당하려고 시내버스를 타는 것도 아닌데 기본 나쁘다. 해당 직원을 징계해야 한다”며 분노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90년대 나이 트 영업멘트도 아니고 저게 뭐냐, 머리에 뭐가 든건지 모르겠다’, ‘남자만 시내버스 기사 하는 것도 아닌데 문자 받은

여성 기사 입장은 생각하지 않았다’, ‘시선 강간을 공개적으로 예고하더니 생각 없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해당 시내버스 운수 회사 관계자는 회사 영업부 직원 중 한 명이 보낸 단체 문자가 맞다고 인정하며 “문자를 보낸 직원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고 잘못을 인정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지난 6일 오후 6시40분께 여수 전남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싸이흠뻑쇼는 약 3만명의 관람객이 참여해 3시간 가량 진행됐다. /김다인기자

장성 군내버스 현금 수입 탈루 의혹

대표 친인척이 직접 작성일지 관리 준공영제 지원에도 관리·감독 ‘구멍’

수입액의 예산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적자 손실액 부풀리기 의혹을 받아온 장성군내버스 업체가 이번에는 현금 수입 탈루 의혹에 휩싸였다. 7일 장성군에 따르면 장성군내버스 업체가 쌓이면서 2015년부터 7년 새 3배 늘어난 45억원의 세금이 적자분을 메우는 데 지출되고 있다. 적자손해액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의 적자 손실액 산출방식에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군내버스 ‘현금 수입액’의 투명성에도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버스 준공영제의 경우 적자 손실액을

예산으로 보조하는 특성상 현금 수입금의 투명성과 정확한 이용객 파악을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하지만 장성군내버스 업체의 현금 수입은 해당 업체 대표 포함, 친·인척 관계인 등 내부 직원 7명의 작성일지에 의존해 관리·감독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입금의 투명성은 물론, 정확한 운영 실적 파악 또한 버스업체에 맡겨놓은 실정이다. 공공성을 담보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버스업체의 현금 수입마저 감금이 관리되고 있어 ‘검은돈’이 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2015년 서울에서는 사장의 친·인척이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드러난 논란을 빚었고 감사 결과, 표준 운송원가를 부풀린 게 적발됐다. 대구에서는 한 버

스회사 대표와 부사장 등이 회사돈 1억3천여만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준공영제를 둘러싼 각종 비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과 관리·감독이 시급하다는 게 중론이다. 군민 A씨는 “군내버스 업체의 운영 방식이 무척 의심스럽고 그동안 장성군의 허술한 행정 또한 이해하기 힘들다”며 “철저한 조사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장성군 관계자는 “장성군내버스 업체의 현금 수입은 장성군이 평소 관리·감독하지 않고 보조금 지급을 위한 연구용역 기간에만 감독하고 있다”며 “개선 방안을 찾아 조치하겠다”고 해명했다. /장성=김문태기자

골프장 해저드 익사사고...캐디도 입건

순천의 한 골프장에서 이용객이 연못에 빠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경기보조원(캐디)의 책임 여부를 따져보기로 했다. 전남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기보조원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사고 당시 공을 주우려다 3m 깊이의 연못(워터 해저드)에 빠져 숨진 여성 골퍼를 제지하거나 위험성을 경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연못 주변에 울타리 등 시설물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골프장

안전담당자 1명은 경찰에 입건돼 조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또 공중이용시설의 안전·보건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는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이 1명 이상 사망한 경우 안전·보건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주 등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놨다. /오복기자

주책화재...신원미상 1명 숨진 채 발견
장성군 한 주택에서 불이나 1명이 사망한 채 발견됐다. 7일 장성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40분께 장성군 삼계면 주택에서 불이 났다.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진화 작업을 벌여 약 1시간 만에 불을 꺾었다. 불이 꺼진 뒤 주택 내부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 1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 당국은 사망자 신원 확인과 함께 화재 원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장성=김문태기자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Rg3홍삼을 선물하세요! 시대가 요청하는 Rg3홍삼!

**품질을 비교할 때
홍삼성분 함량 꼭 확인!!**

- **제품1g당 함유된 홍삼성분 함량**
예) 고려홍삼순원액 - 1.6mg/g
홍삼사랑 ----- 2.7mg/g
- **홍삼농축액(홍삼성분70mg/g)기준 비율**
예) 고려홍삼순원액 - 2.25%
홍삼사랑 ----- 3.8%
- **주요성분 Rb1+Rg1+Rg3 함량**
예) 고려홍삼순원액 - 9mg/포
홍삼사랑 ----- 13mg/포
- **인삼성분을 변화시킨 산삼성분 Rg3**
예) 고려홍삼순원액 - 4mg/포
홍삼사랑 ----- 6mg/포

실비용



고려홍삼순원액(70ml) 30포

고급선물용



홍삼사랑(60ml) 30포

홍삼성분함량과 가격을 비교해보세요!

고려홍삼순원액 50,000원 → 45,000원
홍삼사랑 150,000원 → 135,000원

고품질을 보증하는 바로 이 맛!

한약재, 첨가물 NO!	▶ 쌉쌀한 맛
홍삼성분 다량 함유	▶ 푹내가 없음
산삼성분 Rg3 다량 함유	▶ 느끼한 맛 없음
6년근 1등삼 25지	▶ 깔끔한 맛
국산 홍삼만 사용	
불필요한 고형분 제거	

**홍삼성분만으로도 맛과 색이 진하므로
다른 첨가물이 필요없습니다.
혼자 먹기엔 아까운 품질!**

| 동별 매장 모집 |

자격 : 6평 이상 매장 준비 가능한 분
보증금 : 없음

(주) 고려홍삼공사 061) 373-8179

www.고려홍삼.shop